

한국전에서의 흑인용사들 기념행사 축하 메시지

오늘 '한국전에서의 흑인용사들' 행사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참전용사와 미국 시민 여러분께 한국 국민들의 따뜻한 인사를 전해 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애써 주신 조지 부시 대통령과 미국 정부, 그리고 모건 대학의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빌려 저는 1950년 한국전쟁에서 우리와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미합중국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각별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한국전쟁은 2차 대전 이후 공산주의의 세계적 확산을 한반도에서 저지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이 공산주의의 무력 침략에 굴복되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물론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은 유지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전용사 여러분의 용기와 헌신, 특히 5천여명의 흑인용사를 비롯한 5만 4천여 미군 장병들의 장렬한 희생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피로써 맺어진 한·미 동맹관계는 지

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유지에 핵심적인 공헌을 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여 주신 용기와 우정은 지금도 한국민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국민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 뜻 깊은 행사가 한·미 우호협력의 영원한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머지않아 워싱턴에서 반갑게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